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7. 2. 20.(월) 11:30
담당과장	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 손웅기 (044-215-7650)	담당자	김지현 사무관 (044-215-7653) jhkim1229@korea.kr

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, 영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

- 유일호 부총리, 영국 로드메이어(런던시티 시장) 면담 -

- ◇ 브렉시트 관련, 현황·향후전개·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면서,
 - 유일호 부총리는 영국 진출 한국 금융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 등에 대한 로드메이어의 협조와 관심 당부
- ◇ 국제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와 한·영 금융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핀테크 육성 등 첨단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

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앤드류 팜리 (Andrew Parmley) 로드메이어*(The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)와 2.20(월) 서울 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.

* 런던 금융특구인 런던시티 시장으로 런던시티의 비즈니스를 대표하고, 영국 금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

【 브렉시트 관련 우리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 당부】

-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브렉시트 백서(White paper) 발표(2.2일), EU 탈퇴통보 법안의 하원 통과(2.8일) 등에 따라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방향은 보다 명확해졌으나,
 - 영국내 브렉시트 찬·반 세력간 갈등, 프랑스·독일의 선거 일정 등을 감안시 탈퇴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하였다.

- 앤드류 팸리 로드메이어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전세계가 영국의 투자·금융 등과 관련된 기업환경에 주목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,
 - 영국 정부는 전세계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고 런던내 금융기관 및 금융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

- 유부총리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對韓 수출입 관세율 인상 가능성, 영국의 패스포팅 권한* (Passporting Right)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며,
 - * EU내 한 회원국에서 금융업 허가를 받을 경우, 타 회원국에서도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제도
 -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, 영국내 한국 금융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드메이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.

【 한-영 통상협력 및 핀테크 등 첨단금융 분야 협력 】

□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-영 경제·통상 협력이 흔들림 없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선제적으로 협업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○ 유부총리는 한-영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-영 FTA 추진 등을 미리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□ 양측은 핀테크 육성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유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설명하며,

- 글로벌 금융중심지이자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런던시티와 한-영 금융협력포럼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○ 로드메이어는 규제 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* 등 영국의 핀테크 육성 정책을 소개하며, 한국의 경우에도 높은 기술력 및 역동적인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.

*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

- 또한,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함과 동시에,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.

【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】

- 금번 면담을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와의 흔들림없는 파트너십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,
 -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, 경제·금융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브렉시트 협상 등에 따른 우리 경제 및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,
 - 영국 정부,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